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강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식당과 후방경리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늘 강조하시는것이지만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그들이 더 큰 생산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며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축정계기공장에서 당중앙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들중의 하나를 풀었다고,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최근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는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을 돌아보니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성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하시

면서 이런 로동계급들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자신께서 이 공장의 명예지배인이 되시겠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들의 가슴마다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이 뜨겁게 맥동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현실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로동

계급들이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들처럼 살며 투쟁한다면 정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함께 군자리로동계급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리는것이 좋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경제강국건설로선과 전략적구상을 높히 발되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군대에 보내줄 더

많은 계기류들을 개발생산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은 공장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맡겨준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친근한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지난 67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방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나라의 과학이 현대적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되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흥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하여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긍지로 여깁니다.

이 경사스럽고 력사적인 계기에 즈음하여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어 승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또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국가를 보위하고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과 조선의 평화적통일위업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쑤 말 리 싸 이 나 쏘

2015년 9월 2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마호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3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

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리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3일 외교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와 로베르투 풀린 브라질면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리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본사기자

라선시 큰물피해지역 인민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라선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큰물피해복구전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라선시에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많은 량의 물고기를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인민들에게 보내주신데 이어 3일 또다시 그들의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내주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중대사들의결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가 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을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해주시였다.

인민중심의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신데 이어 거듭 배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을 받아안은 피해지역 인민들은 격정에 목매어 눈물을 흘리였다.

라선시에 편이 펼쳐진 인민사랑의 승고한 화폭은 인민을 제일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모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참모습이다.

라선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어머니당에서 거들 안겨주는 크나큰 은정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느처럼 여겨오신 우리 인민 모두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친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어려웠으며 시한

의 인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려는 웅심깊은 사랑이 담겨

져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선봉지구 중현동의 인민반장 리영복은 부모들도 자식들이 입은 큰물피해를 두고 격정만 하고있을 때 우리 당에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었다, 그 사랑에 인민 반원들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목메어 말하였다.

선봉지구 송평동의 김애옥과 중현동의 차영순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쓰고살 새 살림집을 지어주도록 하시고 식료품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천부모가 아니고시야 이렇

게 다짐하실수 있겠는가고 격정을 토로하면서 당의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였다.

라선지구 유현농수산물사업소 로동자 김영만은 정말 어머니당의 품은 내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품이다, 당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금 라선시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무서울것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피해복구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